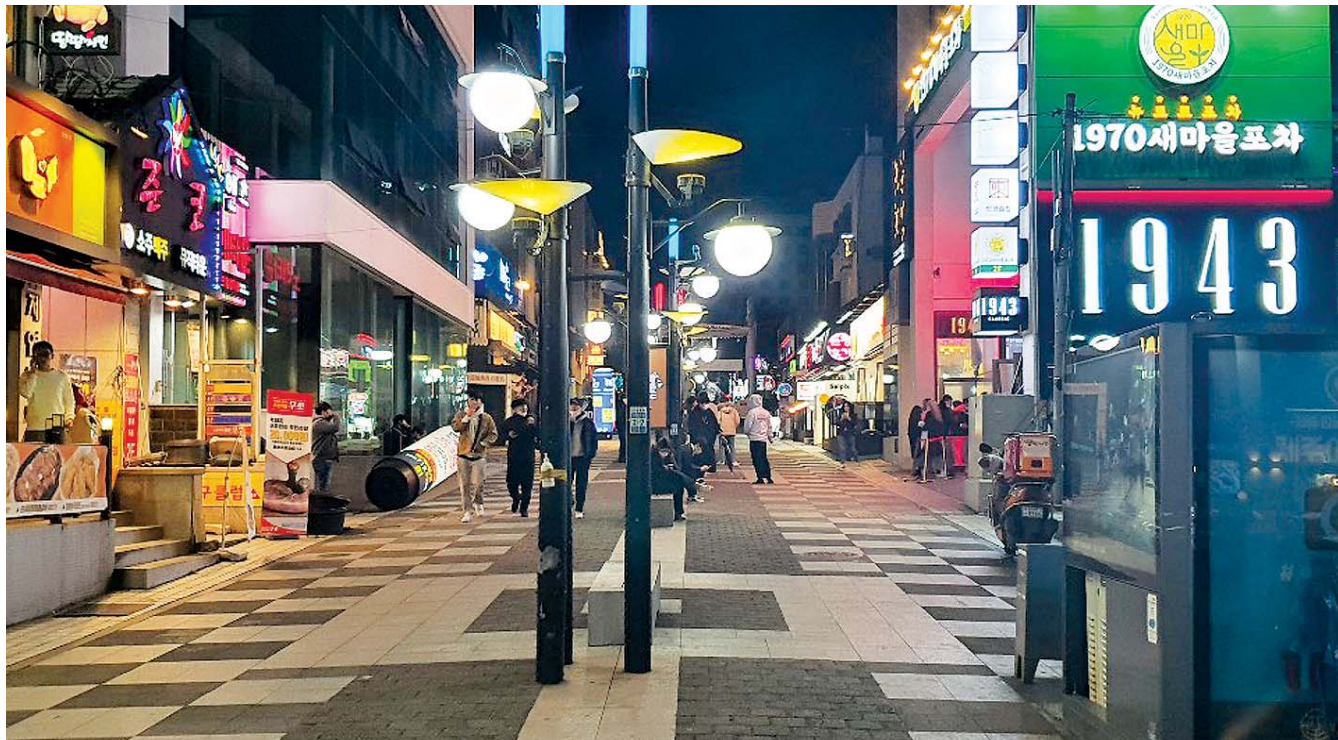


■ 도,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 가보니...

밤 10시 이후에도 간판에 불이 켜졌다

30대 직장인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식당·카페업주 "영업시간 제한 해제돼 너무 다행" 유흥주점 "특단대책 필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5일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는 밤 10시 이후도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민성기자

지난 15일 저녁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 거리. 이 일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인적이 뜸했던 거리 곳곳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음식점에서는 분주하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인근 카페에는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영업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인근 오락실에선 인형뽑기와 오락을 하는 사람들도 목격됐다. 밤 10시가 지난 이후에도 간판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장사가 진행됐다.

이곳에서 음식점을 하는 박모(54)씨는 영업시간 완화에 이전보다는 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손님이 없어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이날부터 해제돼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반기는 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거리두기 완화로 밤에도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이날 모처럼 친구를 만나 저녁시간을 가진 안모(33)씨의 말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안씨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던 때는 근무로 인한 외출을 제외하면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

반면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 완화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웨모루 거리 인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유흥업소는 손님들이 보통 밤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잦은데, 10시까지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란 소리다"라며 "밤 장사 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성기자

오늘 내일 강풍 동반 한파 온다

산간지역 5~15cm 적설
체감온은 영하 4℃ 예상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오늘(17일)부터 제주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도로가 결빙되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생성된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해안지역에도 눈·비가 18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산간지역 5~15cm이며 많은 곳은 20cm까지, 해안지역도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대설 예비특보에 따라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응계획'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운영계획'에 맞춰 관련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온도도 급격하게 낮아져 체감온도는 영하 4℃를 기록하는 등 매우 춥겠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0~2℃, 낮 최고 기온은 3~5℃를 나타내겠다. 18일 최저기온은 0~1℃, 낮 최고 기온은 5~7℃다.

특히 도는 중산간 도로 등 노선별 시설작업 계획을 수립해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17~18일에 인력·장비를 투입한다. 중산간 도로가 많은 눈이 쌓이면서 통제되면 대중교통 우회 운행이나 대체노선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전역에 16일 오후 6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바다의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AI 발생 오리농장 주변 역학조사 결과 '음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 옥용오리 사육 농장에서 발견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와 관련해 주변 10km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거점소독센터와 통제초소의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긴급방역조치로 지난 12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는 3월 5일까지 21일간, 13일에는 제주시 전 가금농장과 역학관련 차량·시설 등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 12일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축사 밀집지역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5356마리와 냉동오리고기 63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발생농장 반경 1~3km 내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가금류 111마리를 수매해 도내 처리했다.

초등교사 부적절 동영상 촬영 검찰 송치

부적절한 동영상 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내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도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동영상을 촬영해 수집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강민성기자

유·초 1~2학년, 고 3학년 매일 등교

제주도교육청 2021학년도 학사일정 계획 발표

900명 이상 초·700명 이상 중·고 2/3 등교 수업 개학 전까지 모든 교직원 타시도 방문 금지 조치



2월 '거리두기'가 3월 '일학식'으로 이어집니다. 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장기화 속 올해 제주지역은 지난해와 달리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학사일정이 정상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맞춰 입학식과 등교수업이 정상 시행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이석문(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학년 준비기간 운영'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은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하게 된다. 특수학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등교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900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7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2/3에서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데, 도내 해당 학교는 총 34개교(초 15, 중 9, 고 10)다.

입학식은 신입생 50명 이내의 학교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100명 이내 규모로 개최할 수 있다. 신입생 5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없이 신입생과 학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열린다.

방과후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법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된다. 돌봄교실은 1~2학년 초 등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되고, 원격수업에 따른 미등교 시 3학년 대상 긴급 돌봄이 시행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학전까지 모든 교직원들의 타시도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철저한 방역을 위해 보건교사와 보건 보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 시설물 소독 등 대청소와 환기 상태를 점검한다. 오은지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